

『신찬성씨록』 황벌씨족 화이(와니)씨의 출자에 관한 연구*

나행주 _ 건국대 사학과 초빙교수

목 차

- I. 서언
- II. 연구사의 검토
- III. 화이(와니)씨의 출자
- IV. 화이(와니)와 왕인(와니)
- V. 결어

국문초록

본고의 목적은 일본고대 천황가의 최대 외척씨족 가운데 하나로서, 『신찬성씨록(新撰姓氏錄)』에 그 격이 가장 높은 황벌(皇別)씨족으로 분류되어 있는 와니(和邇)씨에 대해, 과연 그 출자가 재지의 토착호족이며 더욱이 천황가의 후손인 황벌 씨족인지를 검토하는데 있다. 무엇보다도 황벌 씨족 화이(와니)씨는 백제의 王仁(와니) 및 그 일족과의 공통성이 다수 확인되고 있어 양자는 동일인물·동일 실체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 첫째로, 황벌 씨족 화이(와니)씨 및 그 일족과 왕인(와니) 및 그 일족의 공통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행했다. 그 결과, (1)양자 사이에는 씨족 명칭 및 인명 표기에 있어서 한자(和邇=王仁)표기와 일본음(와니)에서 완전한 일치율을 보이고 있는 점, (2)양자의 거주지, 지역적 기반에 있어서의 일치, (3)양자의 직장(직업) 및 활동분야에서의 공통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과제번호 2016S1A5B5A07921376)

둘째로, 황별 씨족 화이(와니)씨의 출자를 규명하기 위해 화이(와니)씨의 시조(조상)에 대한 검토, 동족(후예) 씨족 가운데 眞野(마노)씨에 대한 출자의 규명, 小野(오노)씨의 가바네(姓)에 대한 검토를 행했다. 그 결과, 화이(와니)씨의 조상으로 말해지는 인물에 대한 역사성, 실재성 등 신빙성이 없다는 점, 오노(小野)씨의 가바네(姓)도 황별 씨족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특히 眞野(마노)씨는 백제계 도래씨족인 民(다미)씨와 동족관계임이 증명되고 있다는 점 등을 확인했다. 따라서 이를 통해 화이(와니)씨 일족이 토착(재지)의 황별 씨족이 아닌 한반도 도래계 씨족임을 확인했다.

셋째로, 한반도 도래계로 확인된 화이(와니)씨의 보다 구체적인 출자를 확인하기 위해, 왕인(와니) 후예씨족임이 분명한 高志(고시)씨에 대한 검토를 하였고, 이를 통해 高志(고시)씨가 화이(와니)=大春日(오오카스가)씨와 동족관계임을 확인했다. 즉 이로써 화이(와니)씨는 그 출신이 한반도 가운데 백제계 씨족임이 확인된 것이다. 결국, 왕인(와니) 일족(高志·民)과 화이(와니) 일족(眞野·大春日)은 동족이며, 따라서 왕인(와니)와 화이(와니)는 동일 실체로서 화이(와니)씨가 일본의 재지(토착)호족이 아닌 백제에서 건너간 왕인(와니)과 관련된 씨족임이 명백하다.

마지막으로, 화이(와니)씨의 출자가 개변(변화)된 배경 및 이유를 검토했다. 즉 도래계(백제계)의 화이(와니)씨가 왜 그 출신(출자)이 황별 씨족(토착호족)으로 개변된 것일까? 그 가장 큰 이유·배경은 역시 이 씨족의 최대의 특징으로서 주목되는, 민달(敏達) 천황 등 5세기에서 6세기 후반에 걸쳐 즉위한 7명의 천황에게 총 9명의 왕비(왕비)를 제공한 천황가의 외척씨족이라는 점에 있음을 확인했다. 즉, 화이(와니)씨가 수대에 걸쳐 천황가의 외척이 됨으로써 그 가계를 높이기 위해 도래계 씨족에서 황별씨족으로 출자(출신)가 바뀐 것이다.

주제어

화이(와니), 화이(와니)씨, 왕인(와니), 출자(出自), 출자개변(出自改變), 황별(皇別), 도래계(渡來系), 신찬성씨록(新撰姓氏錄)

I . 서 언

일본고대사의 이해에 있어서 야마토(大和)국가의 형성과 운영과정, 그리고 그 완성체로서의 고대 울령국가의 형성과 전개과정에 있어서 각 시기의 지배층을 형성했던 다양한 씨족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그 출자(출신)가 한반도와 중국에서 유래하는 도래(渡來)계 씨족에 대한 이해는 일본고대사의 성격과 특징을 이해하는데 있어 불가결하다.

아울러, 일본고대국가의 운영에 문서행정과 외교, 재정 등의 실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동시에 고대울령국가의 지배층을 형성했던 도래계 씨족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는 일본고대 지배층의 공식적인 씨족보라 할 수 있는 『신찬성씨록(新撰姓氏錄)』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815년에 공식적으로 편찬된, 국가공인의 당시 지배층의 출자(출신)를 규정한 『신찬성씨록(新撰姓氏錄)』에는 기내(畿内)를 본거지로 하는 총 1,182 씨족에 대해 그 출신을 황별, 신별, 그리고 제번(倭辨)으로 구분해 수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도래계인 제번(倭辨)은 326 씨족으로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실은 나머지 3분의 2를 차지하는 천황가의 후예라 칭하는 황별, 천신지기의 후손이라 할 수 있는 신별로 분류·규정된 씨족 가운데에도 실은 실제의 출신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도래계 씨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러한 사례의 하나로서 주목되는 씨족이 바로 5세기에서 6세기에 걸쳐 7명의 천황에게 9명의 후비(后妃)를 제공한 일본고대의 대표적인 외척씨족의 하나로, 전후 시기의 가쓰라기(葛城)씨 및 소가(蘇我)씨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황별 씨족인 와니(和邇)씨의 존재를 들 수 있다. 무엇보다도 와니(和邇)씨는 일본에 논어와 천자문(즉 유학(학문)과 한문=문자문화)을 전수한 것으로 전해지는 王仁(일본명 ‘와니’) 박사와의 관련

성이 주목되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것처럼 일본사상의 인물 가운데 왕인박사의 경우만큼 사적(문헌상)으로 커다란 족적을 남긴 인물도 흔치않을 것이다. 동아시아의 동쪽 가장자리에 위치한 미개의 일본열도에 ‘미개에서 문명으로’의 전환점에 바로 왕인박사가 위치한다. 무엇보다도 역사시대의 시작이자 문명화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바로 문자(기록)인데, 천자문으로 대표·상징되는 중국의 한자문화를 일본열도에 전한 문자문화의 전수자이며, 또한 고도의 정치철학·지배이념이자 학문·사상인 논어로 대표되는 유교·유학과 학문의 시조, 왜국의 왕자·왕재교육을 담당한 학자·교육자, 와카(和歌)로 대표되는 일본문학의 개조라 할 수 있는 와카(和歌)의 아버지, 일본고대의 최고의 지식인·교양인이자 전근대 일본사상의 현인 가운데 한 사람(『전현고실(前賢故實)』)으로 추앙되는 등 실로 다종다양한 평가를 받는 인물이 바로 백제에서 건너간 왕인박사이다. 본고에서 황별 씨족 와니(和邇) 씨의 출자를 규명하고 왕인 박사와의 관련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유이다.

Ⅱ . 연구사의 검토

전술한 것처럼 본고는 일본고대 천황가의 최대 외척씨족 가운데 하나로서 『신찬성씨록(新撰姓氏錄)』에 황별(皇別)씨족으로 분류되어 있는 와니(和邇)씨의 본래의 출자를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무엇보다도 본고의 문제관심은 황별씨족 和邇(와니)씨와 백제에서 파견된 王仁(와니)박사 및 그 후예씨족과의 관련성을 규명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화이(와니)씨의 출자에 대한 다방면에 걸친 재검토를 통해 그 출자(出自)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검토과제로 설정한 和邇(와니)씨는 그 씨명이 사료(史書)에 따라 和爾, 和珥, 丸邇, 丸, 鰐 등 다양하게 표기되고 있는데, 일본음으로는 모두 '와니'라 불리는 씨족이다(이하, 화이(와니) 혹은 和邇(와니)로 표기한다). 물론, 화이(와니)씨는 일본고대의 대표적인 씨족지인 『신찬성씨록』에서는 3개의 분류 즉 황별(皇別), 신별(神別), 제번(諸蕃) 가운데에서 가장 그 격이 높은 황별(皇別)씨족 다음 아닌 천황가의 후손으로 분류되어 있다.

일본고대에 있어 각 씨족의 야마토(大和) 왕권 내의 정치적 지위 및 가격(家格)을 나타내는 것이 가바네(姓)라 칭하는 신분표식인데, 화이(와니)씨의 원래의 姓(가바네)은 臣(오미)이며 5세기에서 6세기에 걸친 시기에 커다란 세력을 지닌 大和의 雄族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應神, 反正, 雄略, 仁賢, 繼體, 欽明, 敏達의 5세기에서 6세기 후반에 걸쳐 즉위한 7천황에게 총 9명의 后妃를 제공한 천황가 최대의 외척씨족이라는 점이다.¹⁾

그런데, 이러한 일본고대의 대표적인 씨족의 하나인 화이(와니)씨의 경우에 있어 간과하기 어려운 점은, 백제에서 파견된 인물로 일본사상 최초의 박사라 칭해지며, 왜국에 『논어』와 『천자문』으로 대표되는 유학과 한자문화, 학문을 전한 유학의 시조이자 더 나아가 일본 최초의 와카(和歌)를 지은 문학의 시조로도 추앙되는 왕인박사와의 관련성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왕인박사와 화이(와니)씨의 공통성으로 주목되는 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다. 즉, 앞서 언급한 것처럼 황별씨족 和邇(와니)씨는 和爾, 和珥, 和仁, 丸邇, 丸爾, 丸, 鰐 등 다양한 한자로 표기되는데, 일본

1) 화이(와니)씨의 전후 시기의 야마토왕권 내 최대 외척씨족이 바로 葛城씨와 蘇我씨이며, 따라서 이를 통해 화이(와니)씨의 야마토 왕권 내의 정치적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음으로는 모두 ‘와니’로 발음되는 씨족이다. 이 경우 화이(와니)는 즉 씨족명이다. 한편, 王仁박사(『일본서기』·『속일본기』)는 和邇吉師(『고사기』), 王爾(〈대승정사리병기〉) 등으로 인명이 표기되는데, 일본음으로는 역시 ‘와니’이다(이하, 왕인(와니) 혹은 王仁(와니)로 표기한다).

결국, 씨족명 和邇(와니)씨와 개인명 和邇(『고사기』) 즉 『일본서기』의 王仁(와니)은 한자표기와 일본음 발음 모두에서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이는 과연 단순한 우연의 산물일까? 뒤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이는 결코 우연의 일치라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동일한 실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왕인을 의미하는 和邇길사는 화이(와니)씨 자체를 의미하며, 따라서 황벌씨족 화이(와니)씨는 백제에서 건너간 왕인(와니)박사=和邇(와니)길사와 동일인물·동일 실체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든다. 본고의 문제관심은 여기에서 출발하고 있다.

나아가 본고가 1차적인 연구과제로 설정한 화이(와니)씨의 출자문제의 규명과 함께 화이씨 동족집단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소가(蘇我)씨가 신흥 외척세력으로 등장하기 이전까지 가장 유력한 외척씨족으로서의 지위를 점하면서 휘하에 거대한 동족집단을 거느린 왜국 내의 雄族이었다는 점에서도 화이씨에 대한 이해, 즉 그들 씨족집단의 역할과 각 방면에 걸친 활동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작업은 결국 일본고대의 왕권형성사상의 특징 및 지배체제·국가체제 형성과 운영과정상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 『신찬성씨록』을 중심으로 하는 종래의 일본고대 씨족에 관한 한일 양국 학계의 선행연구 상황을 간단히, 무엇보다도 본고의 문제관심과 관련해 뒤돌아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우리학계에서는 『신찬성씨록』과 『記紀』(고사기와 일본서기) 및 『속일본기』 이하의 5국사를 기본사료로 하여 귀중한 연구 성과들이 제시

되어 있으나,²⁾ 주로 한반도에서 건너간 秦씨, 漢씨, 文(書), 船씨로 대표되는 도래계 씨족에 대한 다양한 분석³⁾과 그들의 왜국 내에서의 활동과 역할 등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⁴⁾가 그 중심을 이루어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신찬성씨록』 소재의 황별씨족이나 신별씨족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는 이제 막 시작단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최근, 『신찬성씨록』에 그 출자가 황별씨족으로 분류되어 있는 씨족에 대한 출자 및 출자개변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서보경의 연구가 제시되어 있어 주목된다.⁵⁾ 다만, 이 논문의 문제관심은 어디까지나 원래 한반도 도래계 씨족이었던 眞野씨, 吉田씨의 경우가 어떻게 최종적으로 황별씨족에 편입되었는지에 대한 규명에 있다. 다시 말해 그 출자가 도래계 즉 변별(蕃別)에서 황별로 개변된 眞野씨, 吉田씨 등에 주목해 출자개변의

2) 상세는 後掲의 참고문헌 목록을 참조 바람.

3) 김은숙의 일련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김은숙, 「倭漢氏의 '歸化'傳承의 基礎的 考察」, 『歷史教育』 40, 1986; 「西文氏의 '歸化'傳承」, 『歷史學報』 118, 1988; 「『新撰姓氏錄』의 加耶系 氏族」, 『韓國古代史論叢』 2, 1991; 「일본울령국가의 고구려계 씨족」 『東北亞歷史論叢』 15, 2007 등.

4) 이와 관련해서는 이근우·연민수·정효운·김선민·나행주·송완범·박재용·정진아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근우, 「日本列島の 百濟 遺民에 대하여」, 『韓國古代史研究』 23, 2001; 연민수 「왜로 이주한 백제인과 그 활동」, 『백제유민들의 활동』 백제문화사대계 연구총서 7, 2007; 정효운, 「백제와 왜의 문화교류 양상에 관한 일고찰」, 『일어일문학』 81, 일어일문학회, 2006; 김선민, 「日本古代國家와 百濟王氏」, 『日本歷史研究』 26, 2007; 송완범, 「東아시아세계 속의 백제王氏의 성립과 전개」, 『百濟研究』 44, 2006; 박재용, 「고대 藤原氏와 백제계 渡倭人」, 『百濟研究』 54, 2011; 「고대 蘇我氏와 백제계 渡倭人」, 『한국고대사연구』 54, 2016; 정진아, 「일본 고대국가의 蕃관념의 특수성-천하관의 특징을 중심으로-」, 『東아시아古代學』 16, 2007; 「헤이안 前期의 도래계 관인의 賜姓-귀족관인의 賜姓을 중심으로-」, 『日本歷史研究』 28, 2008; 나행주, 「일본고대국가와 백제계 도래인-특히, 백제계 문필(史姓)씨족의 활동과 역할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52, 한일관계사학회, 2015 등 참조.

5) 서보경의 다음과 같은 일련의 연구가 주목된다. 서보경, 「『新撰姓氏錄』의 편찬과 목적」, 『한일관계사연구』 41, 2012; 「『新撰姓氏錄』에 기재된 鎭守將軍 후에 씨족의 出自改變」, 『일본연구』 57, 2013; 「동조 계보의 변화를 통해 본 王仁, 王辰爾계 씨족」, 『한일관계사연구』 53, 2016; 「『新撰姓氏錄』의 吉田連氏 출자와 氏族標題에 관하여」, 『한일관계사연구』 58, 2017 등 참조.

원인과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즉 이 연구의 경우, 화이(와니)씨 혹은 그 동족인 春日씨와의 지리적 접촉 혹은 정치적 이유로 인해 화이(와니)씨와 의제적으로 결합되면서 결과적으로 황별 씨족으로 편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의 경우와는 달리, 황별씨족 화이(와니)씨 자체의 출자에 대해서는 그다지 문제로 삼고 있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일본학계에서의 화이(와니)씨 및 그 동족에 대한 연구는 기시 도시오(岸俊男)에 의해 시작되었고,⁶⁾ 그의 연구 성과에 의해 화이(와니)씨의 실체가 비로소 제시되었다. 이후 일본고대 씨족지의 보고인 『신찬성씨록』 연구를 집대성한 사에키 아리키요(佐伯有清)의 방대한 일련의 연구에 의해 심화되었다.⁷⁾ 특히 사에키의 종합적이고 치밀한 연구에 의해 화이(와니)씨의 동족집단을 구성하는 여러 씨족 가운데 眞野씨와 中野씨 등의 경우, 원래의 출자가 한반도계 도래인이라는 사실이 규명되게 되었다. 참으로 귀중한 연구 성과이며, 『신찬성씨록』에 황별이나 신별로 분류된 씨족 가운데에도 그 출자가 개변된 사례가 상당히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성과이다. 다만, 사에키의 경우도 본고에서 문제로 삼고 있는 황별씨족 화이(와니)씨의 출자 자체를 기본적으로 문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다면, 일본학계에서 화이(와니)씨의 출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견해가 전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일본학계의 통설적인 이해는 和邇(와니)씨가 황별의 토착씨족이라는 점에 대해 추호도 믿어 의심치 않으나, 이에 대해서는 일부 화이(와니)씨의 출자를 의심하는 연구가 제시되어 있다. 즉 마루야마 류헤이(丸山龍

6) 岸俊男, 「ワニ氏に関する基礎的考察」, 『日本古代政治史研究』, 塙書房, 1966.

7) 佐伯有清, 『新撰姓氏録の研究』 연구篇 吉川弘文館, 1981, 『新撰姓氏録の研究』 考証篇 1 吉川弘文館, 1981, 『新撰姓氏録の研究』 考証篇 2 吉川弘文館, 1982, 『新撰姓氏録の研究』 考証篇 3 吉川弘文館, 1982, 『新撰姓氏録の研究』 索引·論考篇 吉川弘文館, 1984, 「山上氏の出自と性格」, 『日本古代氏族の研究』 吉川弘文館, 1985, 『新撰姓氏録の研究』 考証篇 4 吉川弘文館, 1986, 『新撰姓氏録の研究』 考証篇 5 吉川弘文館, 1988, 『新撰姓氏録の研究』 考証篇 6 吉川弘文館, 1989, 『新撰姓氏録の研究』 拾遺編 吉川弘文館, 2001 등.

平)는 고고학적 견지에서 近江(현 시가현)지역의 고분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근강지역 화이(와니)씨, 眞野씨의 출자와 관련해 제철유적과의 관련성을 통해 한반도계로 추정하고 있고,⁸⁾ 아마오 유키히사(山尾幸久)의 경우는 문헌사학의 입장에서 ‘와니(鰐)’씨라는 씨족명의 분석을 통해 제철집단으로서의 화이(와니)씨의 특징에 주목하여 그 출자를 한반도와 관련시켜 이해하려는 견해⁹⁾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후자의 경우는 본문이 아닌 주)에서 간단히 의견을 피력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한일 양국학계에서 전문(專論)으로서 황별씨족 화이(와니)씨의 출자에 대해, 특히 백제에서 파견된 왕인(와니) 및 그 후예씨족과의 관련성 속에서 직접 문제시 하고 있는 연구는 아마도 본고가 그 최초가 아닐까 생각된다. 즉 본고는 황별 씨족 화이(와니)씨의 출자에 의문을 품고 그 본래의 출자를 규명하려는 최초의 시도라 할 수 있다.

Ⅲ. 화이(와니)씨의 출자

우선, 본장에서는 황별씨족 화이(와니)씨의 본거지, 동족씨족, 직장·활동내용 등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일본고대에 있어서 각 씨명의 유래는, 후지와라(藤原)씨로 상징되는 하사성 즉 천황으로부터 직접 하사받은 성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씨족 자신의 거주지역이나 왜국(왜 왕권) 내에서의 각 씨족이 담당할 고유의 직장(職掌)에서 유래하고 있다.

8) 丸山龍平, 「近江和邇氏の考古學的研究 堅田眞野春日山古墳の歴史的背景をめぐって」, 『日本史論叢』 4, 1974.

9) 山尾幸久, 『日本古代王權形成史論』, 岩波書店, 1983; 「小野氏と小野妹子」, 『遣隋使小野妹子』 志賀町, 1994; 水野正好, 「『河内飛鳥』前夜」, 門脇禎二·水野正好 編, 『古代を考える 河内飛鳥』, 吉川弘文館, 1989.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화이(와니)씨라는 氏名(씨족명)이 유래된 관련 지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화이(와니)씨의 거점이자 세력권을 말해주는 지리적 공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화이(와니)씨 및 동족집단의 거주지역도 포함하여 화이(와니)씨의 세력권을 확인한 후, 다음 단계로 왕인(와니) 후예씨족 및 왕인(와니)후예 씨족과 후대에 동족관계를 형성한 왕진이 후예 씨족들에 대한 거주지, 지역적 기반과의 공통성 유무를 확인하기로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화이(와니)와 왕인(와니) 두 씨족집단의 지역적 공통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화이(와니)씨와 그 동족

먼저, 和邇(와니)씨의 본거지는 大和國 添上郡의 和邇(현재, 나라현 天理市 和邇町 및 그 주변)이며, 和邇下神社가 그 氏社이다. 화이(와니)씨는 점차 세력권이 더욱 확대되면서 동군의 북쪽에 위치한 春日(현재의 나라시 春日野町 일대)로 그 근거지를 옮기게 된다. 화이(와니)씨=春日(가스가)씨가 되는 이유이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 春日(가스가)씨가 다시 大春日(오오가스가)씨를 칭하게 된다.

나아가 화이(와니)씨 일족은 『신찬성씨록』과 『고사기』·『일본서기』의 관련 기사를 통해 그 시조와 동족관계, 그리고 씨족명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일본서기』는 和邇(와니)씨¹⁰⁾의 조상과 관련해 孝昭天皇紀 68년 정월 庚子조에 「天足彦國押人命, 此和珥臣等始祖也」라 하여 孝昭天皇의 황자인 「天足彦國押人命」이 화이(와니)씨 등의 시조임을 말하고 있다.

화이(와니)씨의 출자 및 그 동족씨족 등에 관해서는 『신찬성씨록』과 『고사기』에 더욱 구체적인 관련 기록이 보이고 있다.

10) 단, 일본서기의 화이(와니)씨에 대한 씨족명 표기는 和珥이다.

먼저, 『신찬성씨록』에는 좌경 황벌하 大春日朝臣조에,

“左京 皇別 大春日朝臣 出自孝昭天皇皇子天帶彦國押人命也 仲臣令家重千金. 委槽為堵. 于時大鷦鷯天皇[謚仁德]. 臨幸其家. 詔号槽垣臣. 後改為春日臣. 桓武天皇延曆廿年. 賜大春日朝臣姓”

이라 보이고 있다.

즉 이를 통해 和邇(와니)씨는 황벌씨족 즉 「孝昭天皇 皇子 天帶彦國押人命」의 후예라는 점, 和邇씨는 후에 春日씨, 다시 헤이안시대의 桓武천황 때에 이르러 大春日씨로 개성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和邇(와니)씨=春日(가스가)씨=大春日(오오가스가)씨 임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화이(와니)씨의 동족집단에 대해서는 『고사기』에 따르면, 和邇(와니)씨=大春日씨의 조상인 「孝昭天皇의 皇子 大倭帶日子國押人命」의 후예는 모두 16씨임을 알 수 있다. 즉 『古事記』中卷 孝昭天皇段에

“御真津日子訶惠志泥命, 坐葛城掖上宮, 治天下也. 此天皇, 娶尾張連之祖, 奥津余曾之妹, 名余曾多本毘壳命, 生御子, 天押帶比古命, 次大倭帶日子國押人命. 〈二柱〉故, 弟帶日子國押人命者, 〈春日臣·大宅臣·粟田臣·小野臣·柿本臣·訶比韋臣·大坂臣·阿那臣·多紀臣·羽栗臣·知多臣·牟耶臣·都怒山臣·伊勢飯高君·壹師君·近淡海國造之祖也.〉 天皇御年, 玖拾參歲. 御陵在掖上博多山上也”

라고 기록하고 있다. 즉, 화이(와니)씨는 효소(孝昭)천황의 왕자 大倭帶日子國押人命의 자손으로, 春日臣·大宅臣·粟田臣·小野臣·柿本臣·訶比韋臣·大坂臣·阿那臣·多紀臣·羽栗臣·知多臣·牟耶臣·都怒山臣·伊勢飯高君·壹師君·近淡海國造 등 16씨족이 같은 동족이라 전하고 있는 것이다.

화이(와니)씨의 동족집단에 대해서는 기타의 관련 사료를 통해 위의

16씨족 외에도 和邇部(와니베)씨를 비롯해 眞野씨, 野中씨 등 다수의 씨족이 동족집단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술한 것처럼 화이(와니)씨의 본거지는 현재의 나라현 천리시에 해당하는 지역인데, 和邇(와니)씨가 지닌 당시의 세력을 말해주는 것으로 화이(와니)씨의 일족으로서 和邇(와니)씨 지배하의 部民인 和邇部를 관리하는 반조(伴造)씨족인 和邇部씨가 大和(나라현)를 비롯해 山背(교토부), 近江(시가현), 紀伊(와카야마현), 美濃(기후현), 尾張(아이치현) 등 거의 전국에 걸쳐 분포하는 있는 점을 통해서 확인된다.

무엇보다도 화이(와니)씨는 일본 고대사상 저명한 葛城씨와 蘇我씨 등과도 어깨를 나란히 했던 씨족으로 6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커다란 세력을 지닌 大和의 雄族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특히 씨족으로서의 최대의 특징이자 주목되는 점은 應神, 反正, 雄略, 仁賢, 繼體, 欽明, 敏達에 이르기까지의 5세기에서 6세기 후반에 걸쳐 즉위한 7명의 천황에게 총 9명의 后妃를 제공한 천황이 최대의 외척씨족이라는 점이다. 이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존재가 春日황자이다. 즉 敏達천황의 황자 중에 春日황자가 보이는데 그것은 그의 어머니 다름 아닌 황자의 외가가 春日씨 즉 화이(와니)씨였기 때문이다. 단, 和邇(와니)씨의 경우는 蘇我씨와는 달리, 그 소생이 직접 천황으로 즉위한 경우는 없었으나, 화이(와니)씨 소생의 황녀가 다시 다음 천황의 황후나 후비로 들어가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 특색이다.¹¹⁾

아울러, 화이(와니)씨의 종족집단 가운데 특히 小野씨, 柿本씨 등이 주목되는데, 이들 동족집단을 통해 왜국(야마토 왕권) 내에서의 화이(와니)씨 일족의 직장(職掌)·활동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오노(小野)씨는 일본고대 역사상 중국 수나라와의 외교를 개시한 최초의 견수사 오노노 이모코(小野妹子)로 상징되는 것처럼 왜국의 외교업무를 담당한 씨족으로 평가되며, 가키노모토(柿本)씨의 경우도 저명한 가

11) 岸俊男, 「ワニ氏に関する基礎的考察」, 『日本古代政治史研究』, 塙書房, 1966.

키노모토노 히토마로(柿本人麻呂)가 상징하는 것처럼 고대일본의 문학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한 문예씨족으로서 큰 족적을 남기고 있다. 요컨대, 화이(와니)씨 동족집단은 일본고대의 외교와 문학, 문예 방면 등과 관련한 직장을 역임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2. 화이(와니)씨의 출자

일본고대의 씨족의 출자에 대해서는 『신찬성씨록』과 『고사기』와 『일본서기』(이하, 記紀) 및 5국사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해당 씨족의 본래의 출자를 추구할 수 있고, 아울러 가바네(姓)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도 해당 씨족의 출자(출신)에 대해 어느 정도 가름이 가능하다. 일본고대에 있어 가바네(姓)는 그 씨족 및 동족집단의 정치적 지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표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황별 화이(와니)씨 동족집단에 대한 가바네의 변천을 추적함으로써 황별 씨족으로서의 화이(와니)씨의 출자의 문제점을 규명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일본고대 씨족의 출자(출신)에 대해서는 『신찬성씨록』과 記紀 및 5국사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해당 씨족의 본래의 출자를 추구할 수 있고, 아울러 가바네(姓)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도 해당 씨족의 출자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和邇(와니)씨가 포함된 『신찬성씨록』의 황별 씨족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특히 和邇(와니)씨의 경우처럼 가바네(姓)가 오미(臣)인 소위 臣姓씨족의 경우에는 그 출자가 더욱 의심스럽다. 나오키 고지로(直木孝次郎)씨의 연구¹²⁾에 의하면, 臣姓씨족의 계보는 대체로 7세기 후반·8세기 초반에 성립된 것으로 각 씨의 시조·조상은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소위 隗시⁸대의 천황 및 그 후손이

12) 直木孝次郎, 『日本古代の氏族と國家』 吉川弘文館, 2005.

라고 되어 있다. 결국, 『신찬성씨록』이나 記紀가 전하는 출자는 8세기 이전의 각 씨족의 실질적인 출자를 증명해주는 절대적인 자료가 되지 못함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신찬성씨록』이 전하는 각 씨족의 출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을 전제로 하면 화이(와니)씨의 출자가 일본토착의 황벌씨족이라는 『신찬성씨록』의 기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학계의 통설적인 이해는 화이(와니)씨가 황벌의 토착씨족이라는 점에 대해 추호도 의심치 않으나, 이에 대해서는 일부 화이(와니)씨의 출자를 의심하는 연구가 제시되어 있다. 즉 고고학적 견지에서 제철유적과의 관련성을 통해¹³⁾, 혹은 문헌사학의 입장에서 제철집단으로서의 ‘와니’씨라는 씨족명의 분석을 통해¹⁴⁾, 그 출자를 한반도와 관련시켜 이해하려는 견해가 그것이다.

화이(와니)씨 일족의 출자가 황벌이 아니라는 점은 그 선조의 문체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신찬성씨록』이나 기기(記紀) 모두 和邇(와니)씨(=春日씨) 동쪽은 효소천황의 아들인 ‘天押帶日子命(天足彦国押人命)’을 그 시조로 삼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기기에 보이는 효소천황은 실재성을 인정할 수 없는 소위 ‘궐사8대’의 천황으로 7, 8세기에 들어 창작·가상된 인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¹⁵⁾

또 하나의 이유로서 和邇씨=春日씨에서 나온 동족 小野씨의 경우, 본래의 가바네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그 출자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近江의 小野신사에 전해지고 있는 小野씨의 계보¹⁶⁾를 살펴보면, 敏達天皇-春日皇子-妹子王-毛人-毛野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보이는 妹子王은 물론 일본 최초의 견수사로 유명한 小野妹子를 말하는데, 그는 6세기 후반에 즉위한 敏達천황의 아들인 春日왕자의 후손, 즉 민달천황의 손자

13) 丸山龍平(1974).

14) 山尾幸久(1983).

15) 直木孝次郎(2005).

16) 이 계보 자체는 968년경에 작성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로 되어 있는 것이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오노(小野)씨의 경우의 姓(가바네)은 天武8성제(684년) 이전은 君·公(기미), 이후는 엄연히 황족의 후손이므로 당연히 최고위인 真人(마히토)으로 사성되어야 마땅하다고 할 수 있다.¹⁷⁾ 그러나 실제로는 오노씨의 가바네는 臣(오미)에서 朝臣(아손)으로 개성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¹⁸⁾ 물론 천무 8姓制에서의 真人은 실질적인 황족에게, 朝臣은 유력한 호족에게 부여되는 가바네이다. 결국, 朝臣이라는 가바네를 통해 오노씨가 본래 황별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오노(小野)씨의 동족인 가스가(春日)씨, 와니(和邇)씨의 출자 또한 실제에 있어서는 황별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결국, 이상의 검토를 통해 『신찬성씨록』이나 記紀의 출자는 8세기 이전의 각 씨족의 실질적인 출자를 증명해주는 절대적인 자료가 되지 못한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럼, 오노씨의 진짜 출자는 어디인가? 그 직접적인 실마리는 역시 오노씨와 동족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眞野(마노)씨의 출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마노(眞野)씨에 대해서는 사에키(佐伯)씨의 자세한 고증이 있다. 씨의 연구에 따르면¹⁹⁾, 마노씨라는 성씨는 그 거주지인 근강(近江)국 마노향(眞野郷)에서 유래하는데, 근강국 眞野郷의 최대 호족은 와니베(和邇部)씨 일족이며, 그 일족인 眞野臣은 5세기 중반 한반도에서 이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마노씨는 백제계 도래씨족임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신찬성씨록』 우경 황별에는 신라왕녀 소생의 佐久命의 자손이라 적시하고 있어 적어도 모계가 한반도계임을 전해주고 있고, 보다

17) 山尾幸久, 「河内飛鳥と渡来氏族」, 『古代を考える 河内飛鳥』 吉川弘文館, 1987.

18) 『日本書紀』 天武紀 13년 11월조.

19) 佐伯有清, 『新撰姓氏錄の研究』 考證篇2, 吉川弘文館, 1982.

직접적으로는 『日本書紀私記』(『弘仁私記』)의 序에서 마노(眞野)씨가 民首씨 등과 동족으로 기록되어 있다. 民首씨가 백제인의 자손²⁰⁾이라는 점은 民(다미)이라는 씨족명이나 首(오비토)라는 가바네(姓)를 통해서도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특히 首라는 가바네를 통해 東漢(東文)直씨 계통이 아닌 王仁(와니)후예인 西文首집단의 일원이라 단정해도 과오는 없을 것이다.

이상의 제점을 통해, 황별 씨족으로 되어 있는 和邇(와니)씨(=春日씨·大春日씨)와 그 동족인 小野씨, 眞野씨 등이 모두 일본 재지의 토착호족이 아닌, 한반도 즉 다른 아닌 백제에서 건너간 도래계 씨족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다.

IV. 화이(와니)와 왕인(와니)

본장에서는 왕인(와니)박사와 그 후예 및 그들과 동족집단을 형성한 씨족들의 본거지, 직장·활동내용 등을 검토한 후, 황별씨족 화이(와니)씨와의 공통점을 확인하기로 한다.

1. 왕인(와니) 박사와 그 동족

왕인(와니)박사 후예씨족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사료상 『신찬성씨록』, 『속일본기』·『일본후기』 등 6국사²¹⁾에 보이는 왕인후예씨족들의 사성 혹은 개성 기사, 齋政을 담당한 齋部씨가 작성한 『고어습유(古語拾遺)』, 그리고 왕인후예씨족들의 씨사(氏寺)인 西琳寺²²⁾의 연기를 기록한 『서림

20) 『新撰姓氏錄』 우경 제번하

21) 『일본서기』에서 『일본삼대실록』에 이르는 일본의 관찬사서 6서의 총칭이다.

사연기』의 내용을 통해 확인된다.

우선, 가장 다수의 씨족을 전해주는 『신찬성씨록』에 보이는 왕인 후에 씨족은 본계(본가)인 文씨(좌경 거주 2족), 분가·지족인 武生씨(좌경 거주), 櫻野首(좌경 거주), 栗栖首(우경 거주), 高志(古志)씨(河內國과 和泉國 거주) 등 4개 지역에 거주하는 7개 씨족이 확인된다.

참고로, 『신찬성씨록』의 관련 사료를 적기하면 다음과 같다.

〈신찬성씨록 제번 漢〉

- ① 左京 諸蕃 漢 文宿祢 出自漢高皇帝之後鸞王也.
좌경 제번 한 文宿禰 漢 高皇帝의 후손 鸞王에서 나왔다.
- ② 左京 諸蕃 漢 文忌寸 文宿祢同祖 宇爾古首之後也.
좌경 제번 한 文忌寸 文宿禰와 同祖로 宇爾古首의 후손이다.
- ③ 左京 諸蕃 漢 武生宿祢 文宿祢同祖 王仁孫阿浪古首之後也.
좌경 제번 한 武生宿禰 文宿禰와 同祖로 王仁의 孫(손자) 阿浪古首의 후손이다.
- ④ 左京 諸蕃 漢 櫻野首 武生宿祢同祖 阿浪古首之後也.
좌경 제번 한 櫻野首 武生宿禰와 同祖로 阿浪古首의 후손이다.
- ⑤ 右京 諸蕃 漢 栗栖首 文宿祢同祖 王仁之後也.
우경 제번 한 栗栖首 文宿禰와 同祖로 王仁의 후손이다.
- ⑥ 河內國 諸蕃 漢 古志連 文宿祢同祖 王仁之後也.
하내국 제번 한 古志連 文宿禰와 同祖로 王仁의 후손이다.
- ⑦ 和泉國 諸蕃 漢 古志連 文宿祢同祖 王仁之後也.
화천국 제번 한 古志連 文宿禰와 同祖로 王仁의 후손이다.

다음으로, 6국사 속에 보이는 사성(賜姓) 등 관련 기사를 통해 藏씨의 존재가 추가로 확인된다. 그런데, 藏씨의 경우는 863년에 동족의 전부 후

22) 서림사(사이린지)는 현재의 오사카부 하비키노시에 위치한 절로 왕인후예씨족들의 정신적 거점이었다.

은 일부가 그 본래의 근거지인 河内國 古市郡(현재의 오사카부 하비키노시)에서 우경직(右京職)으로 자신들의 본거를 옮기고 있다.²³⁾ 馬씨의 경우는 765년에 그 일족이 厚見씨로 분기되고, 마씨의 본가는 馬毘登에서 武生連으로 씨족명과 가바네(姓)가 바뀌고 있다.²⁴⁾ 왕인후예씨족 가운데 본가인 文씨의 경우도 그 일부가 791년에서 797년 사이에 淨(淸)野씨로 개성하고 있음이 확인되며²⁵⁾ 또한 구체적인 시기는 특정할 수 없으나 馬씨 가운데에서 高志씨가 분파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왕인후예씨족들과 왕진이 후예씨족들이(葛井, 船, 津, 文, 武生, 藏) 행동을 함께 하고 있는 사례를 통해서도 양자가 동족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²⁶⁾

『서림사연기』에는 당사의 檀越씨족명이 보이는데, [檀越(淨野, 文, 板茂, 武生, 藏)]이라 하여 淨野, 文, 板武, 武生, 藏의 순서로 열거되어 있다. 당시에는 왕인후예씨족 가운데 淨野씨의 경우가 지배적인 지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여기에 서림사의 단월로 板茂씨가 새롭게 이름을 올리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를 통해 板茂씨 역시 文씨에서 분파된 淨野씨, 馬씨에서 갈라진 厚見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문, 무생, 장씨가 개성을 했거나 혹은 이들로부터 일부가 분파하여 생겨난 씨족명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板茂씨의 경우도 정야, 문, 무생, 장씨 등과 함께 왕인박사의 후예 즉 동족씨족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²⁷⁾

이상을 통해, 현재 사료상으로 왕인후예씨족들이 칭한 씨족명은 文(書), 馬, 藏, 武生(馬→武生), 厚見(馬→厚見), 淨野(文→淨野), 板茂, 櫻野, 栗栖, 高志(馬→高志) 등 모두 10개의 씨족명이 확인된다.

23) 『日本三代實錄』貞觀 5년 9월 10일조.

24) 『속일본기』天平神護 원년(765) 9월 정미조 및 동 원년 12월 신묘조.

25) 『일본후기』延曆 16년(797) 2월조 등.

26) 『속일본기』寶龜 원년(770)3월 신묘조 등.

27) 吉田晶, 『日本古代國家成立史論』, 東京大學出版會, 1983.

이러한 왕인(와니) 후예씨족들의 원래의 거주지·지역적 기반은 현재의 오사카부 하비키노(羽曳野)시에 해당하는 河内國 古市郡이며, 동족 집단의 정신적 구심적 역할을 했던 씨사(氏寺)가 바로 서림사(西琳寺)였다. 아울러, 왕인(와니)을 조상으로 하는 후예씨족들의 직장(職掌)을 이해하는데 있어 『古語拾遺』가 주목된다. 무엇보다도 대표적인 왕인 후예들의 고유 직장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왕인 후예 씨족 가운데 특히 그 대표라 할 수 있는 文(書)씨, 馬씨, 藏(倉)씨의 존재가 주목되는데, 이들의 씨족명은 『고어습유』의 저자가 시사하는 것처럼 왜왕권 내에서 자신들이 종사하는 업무·직장에서 유래한 것임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즉, 文(書)씨는 국가의 각종 문서 즉 기록 담당, 藏씨는 창고(특히, 내장)의 관리 즉 물품의 보관 및 출납 담당, 그리고 馬씨는 물품의 육상수송 즉 운반 담당이 주된 임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왕인후예들의 직장은 기본적으로 그 선조인 왕인박사가 야마토 왕권에서 발휘했던 박사 소유의 기능·기술·기예가 그대로 그의 후손들에게 가업(직장)으로 계승되었음을 말해준다. 즉, 문필은 文씨, 창고 관리는 藏씨에게, 馬씨(후의 武生씨)는 말을 이용한(물론, 말의 사육 및 관리 기능도 포함) 육상운반을 담당하는 것이다. 아울러, 馬씨의 존재를 통해 아직기뿐만 아니라 왕인박사의 경우도 일정한 마사(馬飼)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추측하게 한다.

이상을 통해 왕인의 후예인 3집안은 국가의 재정업무 담당, 특히 창고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각종 기능을 서로 분담하여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즉 기록과 출납은 文(書)씨, 창고자체의 운영 및 관리는 藏씨, 그리고 창고에서 출입하는 물품의 운반·수송·유통은 馬씨가 담당하는 소위 분업체계를 유지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왕인(와니) 후예 씨족들은 문자의 사용을 전제로 한 왜왕권 내의 사부(史部)집단의 중핵으로서 재정, 문서행정, 외교문서 작성

등 내정과 외교에 걸친 중요한 업무를 수행했다.

2. 양자의 공통성

화이(와니)씨 일족과 왕인(와니) 및 그 후예씨족들 사이에는 많은 공통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앞서 정리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특히 다음의 4가지 점에서 상호 간의 관련성·공통성이 확인된다.

첫째, 화이(와니)라는 씨족명과 왕인(와니)라는 인명의 일본음 및 한자 표기에 있어 완전한 일치성을 보이고 있다. 앞서 확인한 것처럼 황별씨족 和邇(와니)씨는 和爾, 和珥, 和仁, 丸邇, 丸爾, 丸, 鱒 등 다양한 한자로 표기되는데, 일본음으로는 모두 ‘와니’로 발음되는 씨족이다. 이 경우 화이(와니)는 즉 씨족명이다. 한편, 王仁(와니)박사(『일본서기』·『속일본기』)는 『고사기』에서는 和邇吉師, 〈대승정사리병기〉에서는 王爾 등으로 표기되고 있는데, 일본음으로는 역시 ‘와니’이다. 주목되는 것은 개인명 王仁은 和邇로도 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씨족명 和邇(와니)와 개인명 和邇 즉 王仁(와니)은 한자표기와 일본음 발음 모두가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이는 동일한 실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결론적으로, 왕인을 의미하는 和邇길사는 화이(와니)씨 자체를 의미하며, 따라서 황별씨족 화이(와니)씨는 백제에서 건너간 왕인(와니)박사=和邇(와니)길사와 동일인물·동일 실체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든다. 본 연구의 문제관심은 여기에서 출발하고 있다.

나아가 이 경우, 왕인박사를 의미하는 ‘와니’ 혹은 ‘和邇’는 모두 인명(나아가 氏名)이며, 구체적으로는 성+이름(즉 和는 성, 邇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²⁸⁾ 즉 和邇(와니)는 다른 아닌 왕인박사가 도왜(渡倭) 이전의

28) 박광순 타, 『왕인박사연구』, 전라남도·(사)왕인박사현창협회, 2012, 박광순 타 『호남인이 일본 고대국가형성에 끼친 영향에 관한 연구』, 전라남도·(사)왕인박사현창협회, 2013 등.

한반도에서 칭하던 실제의 '성과 이름'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고대의 和씨 성의 존재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고대한반도에 '和'씨라는 성씨가 존재했을까. 이 경우, 참고가 되는 것이 『신찬성씨록』의 제번(번별)씨족들에 관한 기록인데, 주목되는 점은 和씨 성의 사례를 『신찬성씨록』 가운데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모두 백제계 2례²⁹⁾와 고구려계 1례³⁰⁾를 찾을 수 있는데, 백제계 2례 중 하나는 무령왕의 후손으로서 훗날 桓武천황의 어머니가 되는 和씨(후의 高野씨) 집안이며, 또 다른 하나는 그 계통을 달리하는 백제계 화씨가 존재한다. 이상의 사례를 통해 실제로 한반도(백제 및 고구려)에 和씨가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 주목되는 점은 백제인, 고구려인 가운데 '씨족명(성씨)+인명'의 형태인 '和邇'와 마찬가지로 '和德'과 '和興'이라는 인물(성씨와 이름)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자는 백제계 씨족 大原史의 시조가 되는 인물이며, 후자는 고구려계 씨족 島史의 조상이 된 인물이다.³¹⁾ 참고로, 성씨록에서는 漢 즉 중국계로 분류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백제계가 확실한 和藥使主씨 즉 '和藥'의 경우도 또 하나의 귀중한 사례로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³²⁾

결국, 기기의 和邇=王仁은 인명인 동시에 자신의 집안을 나타내는 씨명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왕인의 경우, 한 인물의 이름(성+명)이 곧 그 집안의 성씨(씨명)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유사 사례로 유일하게 아직기의 경

29) 和朝臣과 和連가 보이고 있다. 『신찬성씨록』 左京 諸蕃 百濟 和朝臣조 및 大和國 諸蕃 百濟 和連조.

30) 和造가 보이고 있다. 『신찬성씨록』 大和國 諸蕃 高麗 和造조.

31) 右京 諸蕃 百濟 大興史 '百濟國人 和德之後也.' 및 右京 諸蕃 高麗 島史 '出自高麗國 和興也.'

32) 左京 諸蕃 漢 和藥使主 '出自吳國主照淵孫智聰也.'

우를 들 수 있다. 즉 아직기(阿直岐)는 아직기 자신의 인명인 동시에 그 후예들의 성씨(阿直岐史)인 것이다. 결국, 왕인박사와 아직기의 경우를 제외하면, 고대일본의 성씨 가운데 이와 같은 사례는 일례도 발견할 수 없다.

주지하는 것처럼, 일본고대의 성씨의 유래는 예외 없이 (가)葛城씨, 蘇我씨 등 자신들의 주거지(근거지)에서 유래하는 경우, (2)土師씨, 中臣씨 등 왜 왕권 내에서 맡은 직무(직장)에서 유래하는 경우, 그리고 (3)후지와라(藤原), 미나모토(源), 다이라(平) 씨 등의 천황이 직접 하사한 성씨이다.

그런데, 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직기의 경우와 약간 다른 점도 주목되는데, 그것은 아직기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남녀(아들딸)계 모두에게 계승된 씨족명이라면, 왕인(화이, 와니)의 경우는 본인 및 여계(혹은 모계)에게만 계승되었다는 점이다. 즉 왕인의 후예 가운데 文, 馬, 藏 등 남계는 모두 부계의 성씨가 아닌 왜왕권 내의 직장·직무에서 유래하는 씨명을 지니고 있다. 결국, 황별씨족으로 분류된 和邇=和珥(와니)씨는 한 반도 백제의 王仁=和邇(와니) 집안 자체이거나 딸 집안으로 이어진 씨족명이 아닐까 추측된다.³³⁾

둘째, 화이(와니)씨와 王仁(와니) 집안의 밀접한 관련성은 양자의 존립기반이라 할 수 있는 지역적 공통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주지하는 것처럼 왕인박사의 후예인 문씨, 장씨, 마(무생)씨 등의 거주지는 河內國 古市郡 古市³⁴⁾이며, 왕인후예와 동족관계를 형성한 왕진이 일족(船씨, 津씨, 葛井씨)이 인접지역인 동국 丹比郡³⁵⁾에 있었다. 즉, 왕인박사의 후예들은

33) 혹은 부인 쪽 집안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경우, 곤지의 사례가 참고가 된다. 즉 곤지의 후예 가운데 飛鳥戸造씨가 존재하는데, 이는 곤지의 부인 쪽의 성 즉 모계의 성을 계승한 사례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34) 현재의 오사카부 하비키노시[羽曳野市] 후루이치이다.

35) 현재의 오사카부 후지이테라시[藤井市] 후지이테라이다.

中河內지역을 지역적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실은 和邇=和珥(와니)씨의 경우도 이 지역과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즈노(水野)씨의 연구에 따르면,³⁶⁾ 천황릉의 소재지는 皇后領 혹은 황후 출자 씨족의 氏地(즉 근거지)에 위치하는데, 羽曳野市域에 위치한 후루이치(古市)고분군의 천황릉에 비정되는 능묘 淸寧·仁賢·安閑陵 가운데 2천황은 그 황후의 출자가 和邇=和珥(와니)씨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후루이치지역이 和邇=和珥(와니)씨의 중요한 세력기반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셋째, 양자의 관련성은 천황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확인된다. 우선, 和邇(와니)씨가 지닌 호족으로서의 최대의 특징은 일본고대 천황가의 외척씨족이라는 점인데, 이러한 특징을 지닌 화이(와니)씨와 왕인(와니)집안과의 관련성을 양자의 공통성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추구해 보기로 한다.

왕인박사와 응신천황, 왕인과 응신의 태자(우지노와키이라쓰코)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왕인박사의 집안과 응신왕가와의 혼인관계 성립 가능성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 즉 가와치(河內)신왕조를 창설한 응신천황에게 있어 왕인박사는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브레인이자 정치고문이었다. 무엇보다도 응신에게 있어 왕인박사는 새롭게 창조한 신왕조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야마토국가의 국가체제 및 대외정책의 방향 등을 설계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귀중한 존재였을 것이다. 실제로 5세기의 초창기 야마토 왕권에서는 부관제(府官制), 인제(人制), 부민제(部民制)로 대표되는 각종 지배시스템이 기능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데³⁷⁾ 이러한 각종 지배체제·국가제도는 백제식의 지배방식을 도입한 결과이며, 특히 왕인박사의 주도에 의해 백제식의 각종 지배체제가 직접적

36) 水野正好, 『『河内飛鳥』前夜』門脇禎二·水野正好編 『古代を考える 河内飛鳥』, 吉川弘文館, 1989.

37) 나행주, 「일본고대국가와 백제계 도래인-특히, 백제계 문필(史姓)씨족의 활동과 역할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52, 한일관계사학회, 2015.

으로 도입·운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³⁸⁾

더 나아가 왕인박사와 응신왕조의 밀접한 관련성은 천황 및 왕자그룹과의 관계 속에서도 확인된다. 특히 왕재교육을 담당하는 동궁학사·시학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당시의 태자의 스승으로서 뿐만 아니라 후에 실제로 즉위하는 왕자 인덕 등도 함께 교육시켰을 것이라는 점, ‘난파진가’를 바치며 즉위를 권했다는 고금화가집의 내용을 전제로 하면 왕인박사가 인덕의 즉위에도 일정한 관여·조력을 했을 가능성마저 충분히 상정되는 점 등을 통해 확인된다. 결국, 이러한 왕인박사 집안과 응신왕가와의 공적·사적으로 맺어진 밀접한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대왕(천황)가와 혼인관계가 성립했을 가능성도 다분히 있었을 것이다.

넷째, 왕인(와니)이 일본의 유학, 학문의 시조이자, 문학(특히 와카)의 시조로도 평가되고 있는 점, 후에 씨족인 文(書)씨로 대표되는 왕인(와니) 후예씨족이 한자문화의 사용을 전제로 외교(외교문서 작성)와 재정 등 문서행정에 깊이 관여한 점은 화이(와니) 씨족의 동족 가운데 외교에서 활동한 小野씨, 문학에 큰 자취를 남긴 柿本씨와의 직장, 활동방면에서의 공통성을 확인할 수 있다.

3. 화이(와니)씨와 왕인(와니)

지금까지 고대 씨족명 유래의 요소인 각 씨족 고유의 직장, 즉 왜국 내에서의 업무 내용에 주목해, 화이(와니)씨 동족집단 가운데 견수사로 유명한 小野씨, 만엽가인으로 유명한 山上씨, 와카(和歌)의 柿本씨, 粟田씨 등의 활동내용을 중심으로 여러 관련 씨족의 활동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왕인(와니) 후예씨족들(文씨, 藏씨, 馬씨) 및 한반도계 도래씨족들의 직장

38) 훗날의 사례로서 645년 이후의 개신정권하에서 정치·외교상의 브레인으로서 크게 활약한 국박사 고향현리의 경우가 상기된다.

등과의 비교를 통해 양자의 공통성을 확인했다. 또한 황별씨족 화이(와니)씨 및 그 동족집단의 구체적인 출자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자료를 이용해 그 동조(同祖)관계와 실질적인 출자를 추적함으로써 그 계통을 분명히 하였다. 이 경우, 일차적인 검토 대상 씨족은 和邇部씨, 眞野씨, 安那씨 등이다. 그 결과를 동일한 작업을 거친 왕인(와니) 후예씨족들, 특히 高志씨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양자의 출자에 있어서의 공통성이 더욱 확인된다. 즉, 본고에서 검토과제로 삼고 있는 화이(와니)씨가 실은 왕인(와니)의 집안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왕인(와니)을 조상으로 하는 후예씨족 가운데 하나인 高志(古志=고시)씨는 저명한 대승정 행기스님을 배출한 집안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고시씨의 氏社로 간주되는 高石(고시)신사가 존재하는데, 『和泉名所圖會』(秋里籬島, 1796년)에는 그 신사의 제사신에 대해 ‘조상신인 왕인을 제사지낸다’고 전하고 있다.³⁹⁾ 그런데, 주목되는 점은 왕인의 후예임이 분명한 고시씨가 실은 大春日씨 즉 和邇=和珥씨와 동족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고시씨와 마찬가지로 和邇씨=大春日씨는 왕인박사와 밀접불가분한 관련성을 지닌 씨족임을 말해준다.

결론적으로, 이상을 정리하자면 王仁박사(『일본서기』)=和邇길사(『고사기』)=황별 외척씨족인 和邇씨(『신찬성씨록』)는 모두 ‘와니’로 불리는 동일인격·동일 실체(집단)를 말하고 있다는 점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왕인=화이=와니’가 동일 실체임을 말해주는 근거 가운데, 동족관계의 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삼단논법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즉,

39) 井上薰, 『行基』, 吉川弘文館, 1959, 吉田靖雄, 『行基と律令國家』, 吉川弘文館, 1987.

(가)황별 和邇(와니)씨 일족인 眞野(마노)씨가 백제계(왕인후예)인 변별 씨족 民(다미)씨와 동족이라는 점

(나)변별 백제계(왕인후예) 高志(고시)씨가 황별 和邇(와니)씨=大春日(오오가스가)씨와 동족이라는 점

(다)따라서 왕인(와니) 일족(高志씨·民씨)과 和邇씨 일족(眞野씨·大春日씨)은 동족

결국, 양자는 동일 실체로서 화이(와니)씨가 재지호족이 아닌 백제에서 건너간 왕인박사와 관련된 씨족임이 명백하다.

4. 화이(와니)씨의 출자 개변—도래계에서 황별씨족으로

지금까지의 검토를 통해 황별 씨족 화이(와니)씨가 본래 일본토착의 재지씨족이 아니며, 그 실제의 출자(출신)가 한반도 백제에서 파견된 왕인(와니)과 동일 실체임을 논증했다. 그렇다면, 화이(와니)씨의 출자가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달리 말해 출자가 개변된 정치적·현실적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위해서는 외척으로서의 화이(와니)씨의 씨족적 특성에 주목해, 특히 출자개변의 근본적인 이유를 이해하는 의미에서, 같은 외척으로서의 특징을 지닌 대표적인 씨족인 소가(蘇我)씨, 가쓰라기(葛城), 오키나가(息長)씨, 만다(菟田)씨 등의 사례를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작업을 통해 『신찬성씨록』에 씨족의 출자가 도래계에서 신별로, 혹은 황별로 바뀌게 되는 소위 출자개변의 정치적·현실적 이유와 의미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화이(와니)씨=왕인(와니)박사 집안과 왜국 왕실(천황가)과의 혼인관계로 인한 인척관계의 형성 즉 양자의 혈연적 결합에 의해 그 출자가 어느 시기인가 한반도계(변별)에서 일본계(황별)로 전

환·개변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이상과 같은 추측을 하는데 있어 특히 참고가 되는 사례로서, 그 출자가 한반도계로 간주되는 씨족 가운데 정치적으로 천황가와의 밀접한 관련성, 즉 천황가에 후비(后妃)를 제공해 외척관계를 맺게 되는 씨족들의 경우, 공통적으로 그 출자가 황별 혹은 신별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름 아닌 蘇我(소가)씨와 息長(오키나가)씨, 그리고 茨田(만다)씨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이는 和邇(와니)씨의 이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사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고대 일본에서 출자가 개변된 경우는 다수의 사례가 확인된다. 몇 가지 사례·유형을 들자면, (가)우선, 제번 즉 도래계 씨족 가운데 한반도계(백제나 신라)에서 중국계(진한)로 개변된 경우이다. 즉 秦씨(신라·가야계 혹은 백제계)와 漢씨(백제계), 그리고 왕인후예인 文(書)씨, 왕인후예와 동족관계를 형성한 왕진이 후예씨족들을 들 수 있다. 『신찬성씨록』의 도래계 즉 諸蕃(蕃別) 중 대부분이 중국계 즉 漢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漢)계는 대부분 실제의 출자가 중국이 아닌 한반도계 특히 백제계라 보아도 대과는 없을 것이다. (나)두 번째 출자 개변의 사례로서, 본래 도래계인 씨족이 훗날 황별(혹은 신별)씨족으로 개변된 경우이다.⁴⁰⁾ 환언하면, 『신찬성씨록』의 皇別 및 神別 씨족 가운데에는 다수의 蕃別(諸蕃) 즉 도래계 씨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원래 도래계 씨족이 후에 일본의 토착·재지세력으로 전환·개변된 경우라 할 수 있다. 그 사례로서 蘇我씨(『신찬성씨록』 좌경 황별), 息長씨(『신찬성씨록』 右京·山城國 황별), 日佐씨(山城國 황별), 小野씨(左京 황별·山城國 황별), 茨田씨(右京·山城國 황별), 峰田씨(和泉國 神別·행기스님의 모계), 眞野씨(右京 황별하), 吉田씨(左京 황별하), 和安部씨(左京 황별하), 野中씨(우경, 황별하) 등을 들 수 있다.

40) 물론 이 경우에 있어 姓은 대체로 首·史에서 臣 등으로 改姓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점은 천황가에 후비(后妃)를 제공하고 있는 집안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蘇我씨, 息長씨, 茨田씨, 그리고 和邇=和珥씨를 들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가운데 息長씨(近江·息長), 茨田씨(河内·茨田), 和珥씨(大和·和珥=和邇) 3씨의 공통적인 특징은 계체(繼體)천황의 妃를 제공한 씨족이라는 점이다. 나아가 여기에 저명한 소가(蘇我)씨의 사례를 포함해 그 출자가 도래계로 추정 혹은 확인되는 씨족은 모두 천황가의 외척씨족이 되는데, 이들의 경우는 예외 없이 그 출자가 제번 즉 도래계가 아닌, 그 가격이 가장 높은 천황가의 후예로 분류되는 황별로 개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V. 결 어

지금까지 일본고대 천황가의 최대 외척씨족 가운데 하나로서, 『신찬성씨록(新撰姓氏錄)』에 그 가격(家格)이 가장 높은 황별(皇別)씨족으로 분류되어 있는 와니(和邇)씨에 대해, 과연 그 출자가 재지의 토착호족이며 더욱이 천황가의 후손인 황별 씨족인지를 검토하였다.

무엇보다도 황별 씨족 화이(와니)씨에 대해서는 백제에서 파견된 王仁(와니)박사 및 그 일족(후예씨족)과의 공통성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과연 황별 씨족 화이(와니)씨는 백제에서 건너간 기기의 왕인(와니)박사=和邇(와니)길사와 동일인물·동일 실체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특히, 본고에서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 (가)황별 씨족 화이(와니)씨 및 그 일족과 왕인(와니) 및 그 일족의 공통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행했고, 이어서 (나)황별 씨족 화이(와니)씨의 본래의 출자를 규명하기 위해 화이(와니)씨의 시조(조상)에 대한 검토, 동족(후예) 씨족 가운데 眞野(마노)씨에

대한 출자의 규명, 그리고 小野(오노)씨의 가바네(姓)에 대한 검토를 행했다. 다음으로 (다)한반도 도래계로 확인된 화이(와니)씨의 보다 구체적인 출자(출신)를 확인하기 위해, 왕인(와니)의 후예씨족임이 분명한 高志(고시)씨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행했고, 마지막으로, (라)도래계(백제계)의 화이(와니)씨가 왜 그 출신(출자)를 황벌씨족(토착호족)으로 개변한 것일까 하는 문제, 즉 화이(와니)씨의 출자가 개변(변화)된 배경 및 이유를 검토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가)와 관련해서는 (1)양자 사이에는 씨족 명칭 및 인명 표기에 있어서 한자(和邇=王仁)표기와 일본음(와니)에서 완전한 일치를 보이고 있는 점, (2)양자의 거주지, 지역적 기반에 있어서의 일치, (3)양자의 직장(직업) 및 활동분야에서의 공통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에 관해서는, 화이(와니)씨의 조상으로 말해지는 인물에 대한 역사성, 실재성 등 신빙성이 없다는 점, 오노(小野)씨의 가바네(姓)도 황벌씨족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특히 眞野(마노)씨는 백제계 도래씨족인 民(다미)씨와 동족관계임이 증명되고 있다는 점 등을 확인했다. 따라서 이를 통해 화이(와니)씨 일족이 토착(재지)의 황벌 씨족이 아닌 한반도 도래계 씨족임을 확인했다.

(다)의 문제에 대해서는, 왕인(와니)의 후예씨족임이 분명한 高志(고시)씨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高志(고시)씨가 화이(와니)=大春日(오카스가)씨와 동족관계임을 확인했다. 즉 이로써 화이(와니)씨는 그 출자(출신)가 한반도 가운데 백제계 씨족임이 확인된 것이다. 결국, 왕인(와니) 일족(高志·民)과 화이(와니) 일족(眞野·大春日)은 동족이며, 따라서 왕인(와니)와 화이(와니)는 동일 실체로서 화이(와니)씨가 일본의 재지(토착)호족이 아닌, 백제에서 건너간 왕인(와니)과 관련된 씨족임이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라)의 화이(와니)씨의 출자가 도래계에서 황별씨족으로
개변(변화)된 문제에 대해서는, 그 가장 큰 이유 및 배경은 역시 이 씨족
의 최대의 특징으로서 주목되는, 민달(敏達) 천황 등 5세기에서 6세기 후
반에 걸쳐 즉위한 7명의 천황에게 총 9명의 왕비(왕비)를 제공한 천황가
의 외척씨족이라는 점에 있음을 확인했다. 즉, 화이(와니)씨가 수대에 걸
쳐 천황가의 외척이 됨으로써 그 가격을 높이기 위해 도래계 씨족에서 황
별씨족으로 출자(출신)가 바뀐 것이다. 日本空間

논문 투고일 : 2019년 5월 14일

논문 심사일 : 2019년 6월 18일

게재 확정일 : 2019년 6월 24일

참고문헌

〈사료〉

『古事記』, 『日本書紀』, 『續日本紀』, 『新撰姓氏錄』
『古語拾遺』, 『懷風藻』, 『和泉名所圖會』, 『西林寺緣起』, 〈大僧正舍利瓶記〉 등

〈국문 연구서, 논문〉

- 김은숙, 「倭漢氏의 ‘歸化’傳承의 基礎的 考察」, 『歷史教育』 40, 1986.
김은숙, 「西文氏의 ‘歸化’傳承」, 『歷史學報』 118, 1988.
김은숙, 「『新撰姓氏錄』의 加耶系 氏族」, 『韓國古代史論叢』 2, 1991.
김은숙, 「일본울령국가의 고구려계 씨족」, 『東北亞歷史論叢』 15, 2007.
최재석, 1989, 「『新撰姓氏錄』批判」, 『大邱史學』 38, 1989.
김은택, 『고대일본 기나이지방의 조선계통문벌들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출판사(백산자료원), 1993.
박운선, 「渡日 百濟遺民의 活動」,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김달수, 『일본속의 한국문화 유적을 찾아서』 1~3 대원사, 1995~1999.
이근우, 「日本列島の 百濟 遺民에 대하여」, 『韓國古代史研究』 23, 2001.
이근우, 「왕인의 천자문·논어 일본전수설 재검토」, 『역비논단』 69, 2004.
박재희, 「味摩之의 伎樂의 再照明(Ⅰ)－伎樂의 當初 모습을 復元하기 위하여」, 『清藝論叢』 16, 1999.
박재희, 「도래인」, 『역사 속의 한일관계』, 동북아역사재단, 2009.
박석순, 「일본 울령국가의 왕권과 대 신라외교－8세기 사절 방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25, 2002.
이재석, 「소위 任那問題의 過去와 現在-문헌사의 입장에서-」, 『역사학연구』 23, 2004.
연민수, 「古代日本의 伽倻觀의 형성과 변용」, 『日本書紀研究』 20, 2004.
연민수, 「왜로 이주한 백제인과 그 활동」, 『백제유민들의 활동』 백제문화사대계 연구총서 7, 2007.
정효운, 「고대 한·일 국가와 타자인식」, 『新羅文化』 28, 2006.
정효운, 「백제와 왜의 문화교류 양상에 관한 일고찰」, 『일어일문학』 81, 일어일문학회, 2006.
박진숙, 「8~9세기 발해와 일본의 경제외교와 大宰府」, 『高句麗研究』 22, 2006.

- 송완범, 「東아시아세계 속의 백제王氏의 성립과 전개」, 『百濟研究』 44, 2006.
- 김선민, 「日本古代國家와 百濟王氏」, 『日本歴史研究』 26, 2007.
- 나행주, 「신라와 임나의 조」 『韓日關係史研究』 29, 2007.
- 나행주, 「일본고대국가의 형성과 마한·백제계 도래인의 역할」, 박광순·임영진·정성일·나행주·박해현, 『호남인이 일본 고대국가형성에 끼친 영향에 관한 연구』, 전라남도·(사)왕인박사현창협회, 2013.
- 나행주, 「일본고대국가와 백제계 도래인-특히, 백제계 문필(史姓)씨족의 활동과 역할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52, 한일관계사학회, 2015.
- 서보경, 「『新撰姓氏錄』의 편찬과 목적」, 『한일관계사연구』 41, 2012.
- 서보경, 「『新撰姓氏錄』에 기재된 鎭守將軍 후에 씨족의 出自改變」, 『일본연구』 57, 2013.
- 서보경, 「'동조' 계보의 변화를 통해 본 王仁, 王辰爾계 씨족」, 『한일관계사연구』 53, 2016.
- 서보경, 「『新撰姓氏錄』의 吉田連氏 출자와 氏姓 標題에 관하여」, 『한일관계사연구』 58, 2017.
- 정진아, 「일본 고대국가의 蕃관념의 특수성-천하관의 특징을 중심으로-」, 『東아시아古代學』 16, 2007.
- 정진아, 「헤이안 前期의 도래계 관인의 賜姓-귀족관인의 賜姓을 중심으로-」, 『日本歴史研究』 28, 2008.
- 신종원·오길환·達志保, 『한국신을 모시는 일본의 신사』 II, 민속원, 2009.
- 박규태, 「교토와 도래인: 하타씨(秦氏)와 신사(神社)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문화연구』 45, 2009.
- 박재용, 「고대 藤原氏와 백제계 渡倭人」, 『百濟研究』 54, 2011.
- 박재용, 「고대 蘇我氏와 백제계 渡倭人」, 『한국고대사연구』 54, 2016.
- 박천수, 『일본 속의 고대 한국 문화』 한빛문화연구총서 6, 진인진, 2011.
- 박광순 타, 『왕인박사연구』, 전라남도·(사)왕인박사현창협회, 2012.
- 박광순 타, 『호남인이 일본 고대국가형성에 끼친 영향에 관한 연구』, 전라남도·(사)왕인박사현창협회, 2013.

〈일문 연구서, 논문〉

- 栗田寛, 『新撰姓氏錄考證』 上·下 吉川半七(1969 『新撰姓氏錄考證』 上, 下 臨川書店 復刊), 1900.
- 太田亮, 『系圖と系譜』 岩波講座 日本歴史 國史研究會編 岩波書店, 1934.

- 井上光貞, 「庚午年籍と對氏政策」, 『日本古代史の諸問題』 思索社, 1949.
- 田中卓, 「新撰姓氏錄の基礎研究-原本と抄本に関する諸問題」, 『大阪社會事業短期大學研究紀要』 2 1953(1996) 『新撰姓氏錄の研究』 田中卓著作集9 國書刊行會, 1953.
- 関晃, 「新撰姓氏錄の撰修目的について」, 『史學雜誌』 60-3(1997) 『日本古代の政治と文化』 関晃著作集 5, 吉川弘文館, 1951.
- 関晃, 「後期の歸化人」, 『歸化人』 講談社, 1996.
- 橋本克彦, 「大化前後の歸化人政策と其活動」, 『中央大學文學部紀要』 3, 1955.
- 志水正司, 「新撰姓氏錄について」, 『日本上古史研究』 2-5, 1958.
- 竹内利三, 「天武「八姓」制定の意義」, 『律令制と貴族政權』 I 御茶の水書房, 1958.
- 原島禮二, 「天武八姓の歴史的意義」(上) 『歴史評論』 122, 1960.
- 石母田正, 「天皇と諸蕃」 『法學志林』 60-3・4合併號(1989) 『古代國家論』 石母田正著作集 4岩波書店, 1963.
- 岸俊男, 「ワニ氏に関する基礎的考察」, 『日本古代政治史研究』 塙書, 1966房
- 前川明久, 「壬申の乱と湯沐邑」, 『日本歴史』 230, 1967.
- 中西進, 「憶良歸化人論」, 『國學院雜誌』 70-11(1996) 『山上憶良』 中西進萬葉論集 8 講談社, 1969.
- 佐伯有清, 『新撰姓氏錄の研究』 研究篇 吉川弘文館, 1981.
- 佐伯有清, 『新撰姓氏錄の研究』 考証篇 1 吉川弘文館, 1981.
- 佐伯有清, 『新撰姓氏錄の研究』 考証篇 2 吉川弘文館, 1982.
- 佐伯有清, 『新撰姓氏錄の研究』 考証篇 3 吉川弘文館, 1982.
- 佐伯有清, 『新撰姓氏錄の研究』 索引・論考篇 吉川弘文館, 1984.
- 佐伯有清, 「山上氏の出自と性格」, 『日本古代氏族の研究』 吉川弘文館, 1985.
- 佐伯有清, 『新撰姓氏錄の研究』 考証篇 4 吉川弘文館, 1986.
- 佐伯有清, 『新撰姓氏錄の研究』 考証篇 5 吉川弘文館, 1988.
- 佐伯有清, 『新撰姓氏錄の研究』 考証篇 6 吉川弘文館, 1989.
- 佐伯有清, 『新撰姓氏錄の研究』 拾遺編 吉川弘文館, 2001.
- 丸山龍平, 「近江和邇氏の考古學的研究-堅田眞野春日山古墳の歴史的背景をめぐって」, 『日本史論叢』 4, 1974.
- 水野正好, 『河内飛鳥』 前夜, 門脇禎二・水野正好 編, 『古代を考える 河内飛鳥』, 吉川弘文館, 1989.
- 大橋信彌, 「近淡海國造について-近江古代豪族ノート3-」, 『滋賀考古學論叢』 2, 1981.

- 黛弘道, 「官位十二階の實態と原流」, 『律令國家成立史の研究』, 吉川弘文館, 1982.
- 早川庄八, 「律令國家・王朝國家における天皇」, 朝尾直弘 編, 『日本の社會史 3
—權威と支配』 岩波書店, 1987.
- 石上英一, 「古代東アジア地域と日本」, 『日本の社會史』1 列島内外の交通と國家』 岩波書店, 1987.
- 石上英一, 『律令國家と社會構造』 名著刊行會, 1996.
- 山尾幸久, 「『日本書紀』任那關係記事の検討」, 『古代の日朝關係』 塙書房, 1989.
- 山尾幸久, 「小野氏と小野妹子」, 『遣隋使 小野妹子』 志賀町, 1994.
- 山尾幸久, 「河内飛鳥と渡來氏族」, 『古代を考える 河内飛鳥』 吉川弘文館, 1989.
- 上田正昭, 『古代豪族と祖先』, 新人物往來社, 1991.
- 直木孝次郎, 『日本古代の氏族と國家』, 吉川弘文館, 2005.
- 直木孝次郎, 『古代河内政權の成立』, 塙書房, 2005.
- 金善民, 「古代の東アジアにおける「歸化」の意味」, 『國際中國學研究』 10, 2007.
- 清野敬三, 「『新撰姓氏錄』にみる「皇別」の信憑性」, 『季刊邪馬臺國』 110, 2011.
- 井上薫, 『行基』, 吉川弘文館, 1959.
- 吉田靖雄, 『行基と律令國家』, 吉川弘文館, 1987.
- 吉田晶, 『日本古代國家成立史論』, 東京大學出版會, 1983.
- 山尾幸久, 『日本古代王權形成史論』, 岩波書店, 1983.

Abstract

A Study on the Root of Koubetu Hwayi(Wani)-uji in 『Shinsensyoujiroku』

Haeng-joo N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rrective root of Wani-uji (和邇氏), who was classified as a clan of koubetsu(皇別) in 『Shinsensyoujiroku(新撰姓氏錄)』.

Most of all, the commonality between Wani-uji(和邇氏) and Wangin(王仁Wani) dispatched from Baekje(百濟), and his relatives has been widely verified. Wani-uji(和邇氏) and Wangin(王仁Wani) bring a question of being the same person.

First,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to check commonality of two sides and verify this.

As a result, we were able to identify three things.

That is, (1) There is a complete correspondence between the two sides in the Chinese character notation(和邇) and the Japanese basic notation(Wani), (2) accordance in the areas of residence, local activity and in the territory, and (3) Common in the field of tasks and activities.

Secondly, in order to verify Hwayi (Wani)-uji, reviewed its ancestors and clans from the same roots; Mano-uji(眞野氏) and Kabane(姓) of Ono-uji(小野氏).

As a result, the following three things can be found : (1) The person who claimed to be Hwayi (Wani)-uji's ancestor does not have any credibility

in its historicity and reality, and (2) Ono's kabane (姓) is unsuitable for clan of Koubetsu, and (3) Mano-uji(眞野氏) confirmed that he is related to Dami-uji(民氏) from Baekje.

Therefore, I confirmed from these points that Wani-uji(和邇氏) came from the Korean Peninsula, not from its native clan.

Third, to identify Wani-uji(和邇氏)'s more specific roots, we have examined Koshi-uji(高志氏)(descendants of Wani).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Koshi-uji(高志氏) is related to Wani-uji(和邇氏).

Wani-uji(和邇氏)[Hwayi (Wani)-ujil] has confirmed that its root is a clan originally from the Korean Peninsula, especially Baekje.

After all, the Wangin(王仁, Wani) and Wani-uji(和邇氏) are related, therefore, Wangin(Wani) and Wani-uji(和邇氏) are the same entity, and Wani-uji(和邇氏) is definitely related to the Wangin(王仁, Wani) crossing over from Baekje.

Finally, we reviewed the background and reason why Hwa-yi (Wani) had her roots changed.

It is also true that Wani-uji(和邇氏) was the maternal line of Tennoke(天皇家) for a long times, and the route has been changed from the Toraikei(渡來系) to the clan of Koubetsu(皇別) to increase the value of their royal line.

Key words

Wani(和邇), Wani(王仁)[Wangin(王仁)], Wani-uji(和邇氏)[Hwayi(Wani)-uji(和邇氏)], Shutsuji(出自), Shutsuji-kaihen(出自改變), Koubetu(皇別), toraikei(渡來系), Shinsensyoujiroku(『新撰姓氏錄』)